

2015 커리어패스 사례집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

문화
예술분야
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차례

01

그림을 통해 머물러 있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알리다

• 김현길 여행드로잉작가 ... 05

02

영화로 나를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다

• 김태희 영화감독 ... 17

03

평범한 예술을 다른 각도로 표현해 세상에 선보이다

• 이병구 조형예술가 ... 33

04

서평과 코미디가 만나면 어려운 책도 친근해진다

• 남정미 코미디 서평가 ... 43

05

작품과 공간을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탄생시키다

• 길다래 설치미술가 ... 55



06

춤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다

• 조현상 현대무용가 ... 67

07

춤추라, 당신도 행복해 질 수 있다

• 김잔디 스윙댄서 ... 79

08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다

• 허혜원 스페이스 약념 대표 ... 91

09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다

• 백영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 & 문화마케터 ... 101

문화
예술분야
2



01

세상과 여행과 사람을 기록하는 여행드로잉작가

그림을 통해 머물러 있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알리다



여행드로잉작가

김현길

- **누구의 이야기?**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인상적인 순간을 드로잉으로 기록하는 여행드로잉작가
- **하는 일은?** 일상과 여행을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여행기로 남기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만화 그리기에 심취해 있던 소년 →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진학 → 대학 재학 중 다양한 그림 활동(벽화/웹툰) →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에 SW 연구원으로 취업 → 퇴사 후 여행드로잉 에세이를 내기 위해 유럽 여행을 떠남 → 첫 여행기 발간으로 작가 데뷔 → 방송, 출간 등 다양한 활동 중
- **장래 포부** 그림이라는 방법을 통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이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 **그의 한마디**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라.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긍정적인 경험에 도전하라.
- **더 알고 싶다면** 김현길 작가의 블로그 <http://rimo.me>
김현길 작가의 페이스북 <http://facebook.com/rimo29>

김현길

여행드로잉작가



때로는 좋아하는 영화 속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 될 때가 있다. 주인공 남녀가 만나서 애틋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카페, 그 장소를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돈을 모아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낯선 외국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물어 물어 찾아갔는데 막상 그 카페에 도착해 커피 한잔 마시고 나니 딱히 할 일이 없다면? 아마도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적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을 멈추는 드로잉』이란 책을 펴낸 여행드로잉작가 김현길 씨는 이런 상황에서 비로소 드로잉 여행의 장점이 도드라진다고 말한다.

여행작가로 데뷔한 지 6개월 차. 이 젊은 작가는 38일간의 유럽 여행을 드로잉과 함께했고, 그 여행을 통해 자신이 한층 더 성장했음을 느

킨다고 한다. 지금은 제주를 여행하며 새로운 드로잉 여행기를 준비하고 있는 작가 김현길 씨를 만났다.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빼고는 만화를 그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림과 만화에 푹 빠졌던 현길 씨는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빼고는 만화를 그리는 시간이 가장 많았다. 중학교 시절에는 그가 연습장에 그린 만화가 각 반에 흩어져 돌아다녔을 정도로, 그는 만화를 잘 그리는 소년이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미술부에도 가입했지만, 그는 미술부 선생님이 권유하는 입시 미술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자연스레 미술에 흥미를 잃게 된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이과생으로서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그는 그래픽을 배우고 싶어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했는데, 학과에서 다루는 그래픽은 그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생각하는 이미지를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학문이라기보다는 공학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흥미를 잃어버린 학과 공부보다는 대외 활동에 더 열심이었다.

“대학교에 오고 나니, 고등학교 때 하고 싶은 일을 너무 하지 못하고 억눌려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손해 봤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직접 찾아서

한 번씩 해보자는 생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세상에 다가가는 만큼 세상이 내게 다가오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죠. 그때 저는 나중에 뭐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활동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졸업할 때까지 마음이 가는 대로 해보자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는 학과나 학생회, 혹은 지인들을 통해 얻은 정보로 다양한 벽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학교 근처의 아동복지센터에서부터 횡집의 벽화를 그리거나, 틈을 꾸려 경북 영주 대평리까지 내려가 마을 벽화를 그리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 당시 그는 동아리나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찾아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처음에는 벽화를 어떻게 그리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벽화 같은 경우 수성페인트로 많이 그리는데, 유성으로 그리다가 망치기도 했죠.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직접 해보면서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귀동냥으로 얻거나 남들이 해놓은 걸 보면서 배워갔어요. 그런 경험들이 제가 그림을 주체적으로 배우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자 마음먹게 된 시기는 회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였다.

입사 1~2년 만에 퇴사를 마음먹게 되었죠.

“사실 커뮤니케이션 쪽 일을 하고 싶어서 다음이나 SK커뮤니케이션 쪽에 지원을 했는데 서류 심사조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하더라고요. 낙담한 나머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생각에도 없던 삼성전자에 지원해 봤는데, 엉뚱하게도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현길 씨는 우연한 계기로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스마트TV를 만드는 그래픽팀에서 그는 4년 가까이 일했다.

“그 집단은 고생한 만큼 급료로 보상해주는 곳이에요. 다소 군대 조직 같기는 했지만 돈을 벌고 싶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이용하는 나름 합리적인 조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나도 회사를 열심히 이용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의욕이 떨어지더군요. 잘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일인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또 내 시간을 뺏기면서 일만 해야 하는 삶이 하루하루를 굉장히 지치게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입사하면서는 그리지 않았던 그림을 그 이후 다시 그려보기도 하며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잘 맞을지를 탐색해보았다. 그렇게 그는 서서히 회사를 떠날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다.

“저는 무언가를 하려는 용기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고 보거든요. 없던 용기가 쥐어짜낸다고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직업화하고 현실화할까, 다음 인생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특히 그는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의 저자 이장희 작가와의 교류를 통해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에 대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 이장희 작가는 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그분은 절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먼저 퇴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림을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 네가 안정된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편안함이 없고, 수입이 때에 따라 엄청 불안정하니 자기 관리도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해주셨죠. 그리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왜 좋은 직장 다니면서 그만두려고 하느냐, 계속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스스로 어떻게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지를 이야기해주셨는데 그 속에서 그분의 삶의 태도를 봤어요.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한다면 조금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이 길에 뛰어들게 된다면 저분처럼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죠. 쉬운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지 않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이장희 작가님과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어요. 저의 멘토죠.”

여행드로잉작가가 되기로 결심하다.

현길 씨는 그림을 전업으로 삼기 위해 바로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았다.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그림을 그리자는 원칙을 세웠고, 주말에는 시간을 내어 여행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림과 여행을 결합한 그의 작품 성향이 만들어졌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기 1년 전부터는 해외여행을 통해 느낀 점들을 나름의 글로 정리해보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 하나의 여행 기사처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완성된 작품을 블로그를 비롯한 웹상에 올리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그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직업으로 삼자고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제 스스로 만족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는 친분 있는 블로거들이 좋은 말만 해주니 그건 힘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했고, 여행작가로서의 제 가능성 검토는 서점에 가서 했어요. 서점에서 실제로 어떤 여행서적들이 나오고 있고, 드로잉이 포함된 여행서적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하나를 딱 부러지게 잘하진 않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책을 꾸준히 만들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겠구나,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장희 작가님께 상담을 해보니까 ‘네 이름으로 정식 계약한 책이 한 권은 있

어야 네가 사회에서 작가로 인정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기 6개월 전부터는 제 책에 대한 설계를 시작했죠.”

38일간의 유럽 여행을 떠나기 전 그의 작품 의도는 유럽의 예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정보 서적의 느낌으로 책을 출간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여행을 떠나니 첫 의도와는 달리 여행지에 대한 정보보다는 자신이 여행을 통해 치유받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글에 담기기 시작했다. 그 자신이 가진 수많은 고민들이 고스란히 여행기에 반영되었고, 그의 책은 한 편의 성장기처럼 구성되었다.

그는 유럽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였던 터키 이스탄불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그의 눈앞에 있는 거대하고 견고한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오스만투르크 사람들은 저 높은 성벽을 정복하려는 꿈을 꾸었고 결국 그것을 이뤄냈는데, 그에 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고 실현가능한 꿈이 아닌가.’ 그리고 그는 결심한 대로 살아보자는 다짐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리모’라는 필명의 여행드로잉작가가 되었다.

직업은 자아실현의 도구일 뿐이에요.

현길 씨는 직업은 돈을 버는 생계수단으로 충분하니, 직업으로 자아실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생계수단일 뿐인 직업에 자신의 100%를 투자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일은 아직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즐기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우선 좋은 취미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은 취미라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끈을 놓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남들보다 더 특별한 재능을 발견해서 직업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좋아하는 것을 성급하게 직업으로 삼기보다는 나의 재능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꾸준히 이어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는 삼성에서 회사원으로 생활했던 경험이 그의 삶에 있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곳에서 일을 하는 동안 물질에 초점을 맞춘 삶의 고단함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 있었고, 대기업이라는 커다란 집단이 운영되는 과정도 지켜볼 수 있었으며, 그 안에서 구성원으로 일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은 지금 새 일을 시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청소년 시절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했던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 같다고 했다.

봉사활동이나 해외 탐방 등의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고, 그 과정을 자기 안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 즐거웠던 경험들이 쌓여, 성인이 된 후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맡닥뜨렸을 때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 나이 대에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세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험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잘하는 것보다 뭐든 열심히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글을 쓰던 사람은 아니지만, 책을 펴내다 보니 글을 쓰는 일도 재미있어져서 드로잉과 글을 함께 작업하는 방식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에요. 여행작가로서 단순히 예쁜 여행지를 소개하는 방식보다는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을 보여주고 싶어요. 또 풍경을 예쁘게 그리는 것보다 별것 아닌 풍경이지만 그 안에 이야기를 담는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은 출판을 위한 작은 그림을 그려왔다면, 지금부터는 출판과는 별개로 좀 더 창작성이 가미된 규모가 있는 작품을 그려보고 싶어요.”

현길 씨는 그림과 여행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리고 그렇게 얻은 행복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작가가 아니라, 세상의 힘든 부분도 얘기하고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글과 그림들을 여행과 일상을 통해 많이 풀어내고 싶다고 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혼자 행복하고자 한다면, 혼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힐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힘겹게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는 이유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행복과 편안함, 따스함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게 제가 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더 편안하고 보편적인 예술을 하고 싶어요.”

02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작가이자 연출자

영화로 나를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다



영화감독

김태희

- **누구의 이야기?** 영화와 드라마, 로맨틱 코미디부터 사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연출자, 작가, 각색가로 활동하는 예술가

- **하는 일은?**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콘티를 짜고, 연출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PC통신 천리안을 통해 다양한 예술문화를 접함 →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영화 동아리 활동 → 5편의 단편영화와 경기 고양 케이블TV 프로그램 <TV 1318> 방송영상 등 제작 → 한겨레문화센터 영상제작학교 6개월 과정 수료 → 단편영화 현장에서 스크립터로 활동 →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진학 → 대학 졸업 후 조근식 감독의 <그해 여름> 연출부로 들어갔다가 목 디스크로 인해 그만둠 → <동거, 동락>이라는 작품으로 장편영화 데뷔 → 시나리오 세 작품을 각색 → <미생 프리퀀> 프로젝트의 여자감독으로 웹드라마 연출 → 이후에도 EBS 통일기획 청소년 드라마 <숨쉬는 그대>와 웹드라마 <모모살롱> 등을 연출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장래 포부** 2년 안에 장편 상업영화 연출로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

- **그의 한마디** 막연한 꿈을 위해 인생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인생의 순차적 목표와 시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스스로에게 주어진 기간 안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김태희

영화감독



영화감독은 작가가 쓴 이야기를 살아있는 그림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시나리오의 인물이 달리는 똑같은 장면을 촬영해도 감독에 따라 다른 그림이 만들어진다. 달리는 연기를 하는 배우의 얼굴을 화면 가득 잡아 배우의 표정을 담아낼 수도 있고, 전신을 다 잡아서 달리고 있는 풍경까지 함께 담아낼 수도 있다. 어떤 각도와 크기로, 또 어떤 배경과 분위기로 이야기 속 장면을 그림으로 바꾸어 내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연출이다. 김태희 씨는 그러한 연출의 역할을 담당하는 영화감독이다.

그녀는 열여덟 살에 본격적으로 영화에 발을 들여놨다. 그녀는 어머니가 사주신 캠코더로 대학에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5편의 단편영화를 만들었을 정도로 영화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예술가로서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 것인지 불안해하면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이 한 선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동거, 동락>이라는 장편영화로 데뷔한 이후 시나리오를 쓰고, 각색과 연출을 하며, 영화와 드라마 장르를 넘나들며 열정적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온 영화감독 김태희 씨를 만났다.

저는 예술적 감성과 자기표현의 욕구가 강한 편이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에어로빅 학원에 다녔던 태희 씨는 발레, 한국무용 등 다양한 무용을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무용을 배우는 것이 좋았던 그녀는 열다섯 살 무렵 배우고 있던 한국무용을 대학에 들어가서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학교에 허락을 구하고 머리도 길렀던 그녀는 어머니의 반대로 처음으로 가졌던 꿈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다음에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전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시며, 공부를 잘하는 그녀가 무용 대신 다른 길을 택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다.

“예술적 감성과 자기표현의 욕구가 워낙 강한 편이었던 저이기에, 무용을 그만두고 나니 자꾸 뭔가를 끼적끼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PC통신 천리안을 했었는데 낙서처럼 끼적인 일기나 수필, 시 같은 글을 게시판에 올리곤 했어요. 저를 표현하는 창구로 활용했던 것이죠. 천리안을

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거기서 알게 된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영화, 음악, 책 등을 접하면서 예술문화에 눈을 뜨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혼자만의 글쓰기를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를 찾아 글을 쓰기 시작했죠.”



중·고등학교부터 대학 때까지 열심히 쓰던 다이어리, 워크숍 DV 테이프들

성적이 좋았던 그녀는 외고에 진학할 생각으로 입시를 준비했다. 선생님들도 그녀 자신도 합격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시험을 망치면서 그녀는 인생의 첫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다. 생애 처음으로 소속되고 싶은 집단에서 자신이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적잖은 충

격을 받았지만, 그 일은 오히려 그녀가 본격적으로 영화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 예술영화를 비롯해 레오 까락스, 왕가위 같은 감독 영화를 보기 위해 한창 비디오가게를 드나들던 때였어요. 영화가 좋아서 고등학교에 들어가 영화 동아리에도 가입했죠. 그런 시기에 단짝 친구를 따라 인사동에서 하는 단편영화제에 갔다가 처음으로 단편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영화를 보다 보니 2시간이 넘는 장편영화는 몰라도 단편영화는 도전해볼 만 하겠다 싶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했죠.

태희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제1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선배가 있었다. 그녀는 하자센터 워크숍을 들으며 카메라 사용법을 배웠고, 선배에게서도 영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게 점점 더 영화에 빠져들던 그녀는 고1 겨울방학 때 무작정 어머니께 영화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는 그녀에게 당시 꽤 값나가는 소니 캠코더를 사주셨다. 그녀는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을 혼자서 밤새 편집하다가 해가 뜨면 학교에 가곤 했다.

“그때 뭘 찍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영화 동아리 친구들이 연기하고, 촬영은 집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실험을 했

던 것 같아요. 편집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친척을 통해 한겨레문화센터 영화학교 조교로 계시던 분을 소개받기도 했고, 고3 때는 공부 안 하고 한겨레문화센터 영상제작학교 6개월 과정 수업을 들으며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를 배웠죠. 그러다 보니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단편영화를 5편이나 찍었고 상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녀는 개인 작품뿐만 아니라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프로그램에 보내는 활동도 했다. 경기 고양 케이블TV의 <TV 1318>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버랜드’라는 이름의 프로덕션을 꾸린 그녀와 친구들은 대본, 편집, 리포터, 촬영 등 각자 역할을 맡아 영상을 제작했다. 학생들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던 그 시절 그녀의 단편영화 <아무 일도 없었다>를 좋게 본 한 PD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그 일은 반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영화를 만들고 배우며 보낸 고등학생 시절 멘토가 되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한겨레문화센터 조교님을 통해서 독립영화단체 M16 분들을 알게 되었는데, 같이 작업하며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 영화 <용의자>(2013), <세븐데이즈>(2007)를 연출한 원신연 감독님을 만나 단편영화 스크립터* 일을 하기도 했죠.”

* 촬영 현장에서 각 장면의 연출, 연기, 분장 그 밖의 상세한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 전체 촬영의 통일을 기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

대학을 다니는 동안 여러 편의 영화를 찍으며 현장에서 몸소 배웠죠.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영화학교를 수료한 상태였던 태희 씨는 굳이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호막이 없는 막막한 상태가 될까봐 대학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른들 눈에 방송국 PD가 더 좋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했다. 영화에만 몰두하던 그녀의 성적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동안 쌓아둔 수상 경력이 있었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방식의 ‘자기추천제’를 활용한다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면접 때 분위기도 좋았고, 어쩌면 붙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결국 떨어졌죠. 그래도 이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영상원 영화과에 들어갔으니 결과적으로 제게 좋은 일이었죠. PC통신에서 만난 친구 덕분에 한예종을 알게 되었어요. 국립이라 학비가 저렴하고 장비도 좋지만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했는데, 글 쓰는 일에 자신이 있었던 저에게는 좋은 조건이었죠.”

그녀의 대학 동기들 중에는 갓 스무 살이 된 그녀보다 5~6살이 많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한예종은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예술이라는 꿈을 찾아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 대학이기 때문이었다. PC통신을 하며 자신보다 나이 많은 언니오빠들과 어울렸던 그녀는 익숙하게 막

내 역할을 해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점과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라는 점은 그녀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었다.

“영화 촬영할 때 쓰는 장비가 워낙 무거워요. 크레인 올릴 때 안정시키기 위해 반대쪽에 올리는 추 같은 경우는 하나에 10kg이에요. 철길처럼 생겨서 이동하면서 촬영할 때 쓰는 ‘달리’도 쇠로 되어 있고, 조명도 전선 하나 굵기가 팔뚝만 하죠. 그런 장비를 들고 뛰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여자라고, 어리다고 몸을 사리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죠. 영화관에서는 무거운 것은 남자가 들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사실 몇 번 들다 보면 요령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렇게 4년을 보내고 나니 목 디스크가 오더라고요.”

영화를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하던 때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태희 씨는 상업영화 연출부를 경험하기 위해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다. 지원했던 4곳 중에 3곳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그녀는 조근식 감독의 〈그해 여름〉(2006)의 연출부로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목 디스크 때문에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인 것만 같았던 그 시간은 오히려 그녀에게 감독 데뷔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상업영화로 감독 데뷔를 하려면 자신이 직접 쓴 시나

리오가 있어야 해요. 신인 감독이 영화사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출 제의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감독들이 본인이 직접 쓴 시나리오를 들고 투자사나 영화사를 찾아가죠. 저는 학교 다닐 때 혼자 습작으로 써놓은 장편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시나리오 전공이 아닌 이상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나가면서 장편 시나리오 한편을 끝까지 완성해서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시간도 없고, 그런 수업도 없었고요. 다행히 저는 방학 때 노느니 시나리오 쓰는 연습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써 놔왔고, 그때 마침 쇼박스에서 신인 감독 공모전이 있었어요. ‘감독의 꿈’이라는 공모전이었는데, 원래 4~5편의 중편 시나리오를 뽑아서 제작 지원을 한 후 개봉하려는 기획이었는데, 결국 제 작품 한 편만 선정이 됐어요. 그 영화가 〈동거, 동락〉(2007)이었죠.”

그녀는 첫 번째 장편영화 이후 3년 정도 영화 일을 하지 못했다. 한번 감독을 맡았던 그녀는 다시 연출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졌고, 데뷔작이었던 영화로 인해 악성 댓글에도 시달리면서 그녀는 영화를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학교가 주는 소속감과 안정감까지 없어 불안했던 그녀는 대학원에 등록했지만, 그 시간이 자신에게 의미 없음을 깨닫고 3주 만에 그만두고 나왔다. 열여덟 살부터 해온 영화를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때 그녀는 시나리오를 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몇 년 놀다 보니 정말 내가 영화를 할 수 없겠구나 하는 타 이미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웨딩플래너 회사에 이력서를 냈었어요. 제

법 큰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출근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 원서를 쓰기 바로 직전에 한 선배에게 제 시나리오를 들고 가서 어디 영화사에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뒀거든요. 그 선배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시나리오는 아니고 제 글 쓰는 실력을 좋게 본 어떤 PD가 각색을 맡기고 싶어 하는데, 그 작업을 해보겠느냐고요. 그 전화가 웨딩회사에서 연락이 온 30분 후에 바로 왔어요. 그 전화를 안 받았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웨딩플래너가 되어있을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수락했어요. 어쩌면 신이 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2011년 즈음 시나리오 각색 일을 하게 됐죠.”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를 각색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혼자 시나리오를 쓰면서는 알 수 없었던 감독, PD, 대표와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첫 각색 이후에도 그녀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와 사극 장르의 시나리오까지 연달아 세 편의 장편영화 시나리오를 각색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두 시간짜리 장편영화 한 편을 통째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연출자로서 저를 환기시켜준 좋은 작품을 만나게 되었죠.

각색 일을 마친 태희 씨가 선택한 다음 일은 웹드라마 연출이었다. 그 작품은 윤태호 작가의 인기 웹툰 〈미생〉의 프리퀄로, 본 편이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그녀가 맡은 일이었다. 프로젝트 주최 측에서는 안영이와 장그래로 대변되는 메인 캐릭터를 20대의 젊은 여자감독, 남자감독이 나눠서 연출했으면 했는데 그녀가 여자감독으로 선택되었던 것이다.

“〈미생 프리퀄〉은 작가나 각색자가 아닌 연출자로서 저를 세상에 환기시켜준 좋은 프로젝트가 됐어요. 제 데뷔작인 〈동거, 동락〉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모처럼 찾아온 연출의 기회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에 임했죠. 한 5년 만에 감독 의자에 앉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스태프들이 알까봐 불안하기도 했고요. 어떤 타이밍에 컷을 외쳐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자전거나 수영처럼 연출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금방 적응이 되었어요.”

보통 감독들은 자신이 찍었던 영화들로 그 시기에 자신이 보냈던 시간을 기억해내는데, 그녀는 작품을 하지 않았던 중간의 빈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매 시간마다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을 했고, 그 경험들은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패의 경험까지도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더 여유로

워졌다. 그녀는 <미생 프리퀼>을 연출한 이후로 EBS 통일기획 청소년 드라마 <숨쉬는 그대>와 웹드라마 <모모살롱>의 연출을 맡았다. 2014년, 그녀는 연출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점점 더 연출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었다.

“제가 영화를 만들듯이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시를 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가진 한 특징에 흥미를 느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찾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청소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해 보면서요. 그 직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성격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곧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태희 씨는 15년 동안 영화와 드라마의 연출자로, 작가로 살아오며 예술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끊임없이 의심해 왔다. 대부분의 예술가가 그렇듯이 그녀 역시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좋은 작품을 만드는 다른 예술가를 알게 될 때면 그녀는 괴로웠고, 또 한편으로는 질투도 났다. 게다가 영화와 같은 예술 계통의 일은 월급쟁이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먹고사는 문제에서도 그녀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연출하고 글 쓰는 작품을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는 데에는 그녀만의 이유가 있었다.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곧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된다는 점이지요. 작품을 만들수록 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아무리 겉모습이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도, 내 안에서 끄집어낸 욕망을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 제 자신을 닮아 있죠. 저는 그렇게 끌어낸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느꼈던 감정을 전하며 관객들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스태프, 배우들과도 끊임없이 그 과정을 거치고요. 그럴 때에만 느낄 수 있는 희열이 있어서 영화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미생 프리퀼〉을 연출하고 난 뒤 결혼을 한 그녀는 현재 장편 상업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있다. 글이라는 것이 인생의 관심사와 자신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보니 그녀의 이야기에는 갓 결혼한 여자, 부부가 되는 과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이 있을 것 같다고 그녀는 말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 왔던 그녀에게는 그동안 이루어 낸 자신의 삶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었다. 영화의 길을 선택한 자신에 대한 후회가 없도록 그녀는 앞으로 스스로에게 충분히 증명해 보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저는 무조건 잘될 것이라며 인생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현

명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해진 기간 안에 해내겠다는 목표 의식과 긴장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영화에서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년 안에 장편 상업영화 연출로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다른 것에 도전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지금 크고 작은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부 거절하고 있어요. 웹드라마든 단막극이든 다른 도전은 2년 뒤로 미루고 현재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에요.”

문화
예술분야
2



03

자연 재료를 소재로 무한대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조형예술가

평범한 예술을 다른 각도로 표현해 세상에 선보이다



조형예술가

이병구

- **누구의 이야기?** 본인의 철학을 예술로 형상화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코자 하는 종합예술가
- **하는 일은?** 흙과 나무 등의 자연 재료를 소재로 조형예술품을 만드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도예과로 대학 진학→산업디자인과 전과를 생각하지만 흙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조형예술에 관심을 갖게 됨→졸업 후 생계를 위해 교육대학원 진학→기간제 미술 교사 근무→작업실을 직접 지으려 한옥 건축 현장에서 3년간 일을 함→남원에 손수 작업실을 짓고 자연 재료로 다양한 종합예술 작업 중
- **장래 포부** 끊임없이 작업을 계속해서 다양한 작품들로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는 것
- **그의 한마디** 예술이란 이미 주변에 있는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 **더 알고 싶다면** 화니토니 공방 블로그 <http://blog.naver.com/kallista79>

이병구

조형예술가



사방이 논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뾰뾰이 선 나무들과 개울이 옆에 있는 전북 남원의 한 도예 공방이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예 공방이라면 쉽게 읽기 어려운 한자 간판과 딱딱하고 고루한 느낌의 도예 장인이 개량한복을 입고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일 것이다. 그러나 자연 속에 위치한 도예 공방 <화니토니>에는 어려운 한자를 쓴 간판도, 개량한복을 입고 “우리 전통의 것이 좋은 것 이야.”라고 주장하는 긴 수염의 장인도 없다.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했지만 스스로를 종합예술가로 부르며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예술가 이병구 씨가 존재할 뿐이다. 그의 닉네임 ‘예랑’은 ‘예술’을 일컫는 ‘예(藝)’, ‘과도 량(浪)’을 써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과도처럼 예술 역시 일상에서 매 순간 끊임없이 다가오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모든 생명은 흙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원초적인 자연스러움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꽃 화(花)’에 ‘진흙 니(泥)’, ‘흙 토(土)’에 ‘진흙 니(泥)’를 붙여 지은 <화니토니> 공방을 직접 본인의 손으로 짓고 그곳에서 자연 재료들을 소재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며 예술 강의를 하기도 하는 이병구 씨를 만나보았다.

미술을 진로로 생각한 건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나서였어요.

병구 씨는 소작농으로 바쁘게 일을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바쁜 부모님의 빈자리를 대신한 것은 8남매나 되는 형제들과의 관계였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활기찬 말썽꾸러기였던 소년은 시내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을 하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

“중학교에 올라오며 도시에 대해 알게 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중학교가 시내에 있다 보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는 버스비도 부족할 정도였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동네에서 자라던 송이버섯을 따다 팔아서 자전거를 샀어요. 처음으로 내 노동력으로 돈을 모아 원하는 걸 가진 거죠.”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한 욕구도 깨어났고, 다양한 부류의 인간 군상을 보게 된 그는 딱히 공부에 취미를 갖고 있진 않았던 터라

중학교 시절 가출도 하고 싸움도 하는 등 방황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 그가 고등학교에 들어가 시작한 공부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다는 걸 알고 고민할 때, 진로에 대해 권유해 준 것은 그의 친구였다.

“2학년 때인가, 친구가 너는 왜 미술학원에 안 가냐고 그래요. 생각해보니 내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미술부였던 거예요. 유일하게 상을 타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술학원은 나와는 관련 없는 돈 있는 애들이 다니는 거였죠.”

그러나 그의 친구는 그가 중학교 때 친구 집의 중천장을 직접 만들어 준 것을 이야기했다. 천장에 못을 박고 철사를 격자로 엮어 신문지를 붙인 뒤, 도배를 하고 커튼을 다는 등의 인테리어를 해주었던 일이다. 까맣게 잊고 있던 그에게 친구는 조금만 더 가다듬고 노력하면 충분하다며 등을 밀어주었다. 인테리어 산업디자인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당시 일반 학원비보다 다섯 배는 비쌌던 미술학원비를 벌기 위해 신문사 작은 방에서 자면서 신문 배달을 했다. 그런 노력 끝에 미술학원을 등록한 그에게겐 미술을 배우고 학원의 선배들과 정을 쌓았던 일이 마치 신세계를 만났던 것처럼 기억된다.

“저녁에 늦게까지 그림 그리다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서는 매일 잠만 자고. 덕분에 고등학교 때 친구는 화실 친구들밖에 없어요.”

관심 없던 도예에 재미를 느낀 건, 흙으로 무언가를 만들면서부터
였어요.

누나와 매형들의 도움으로 형제들 중 처음으로 대학에 간 병구 씨는 도예과에 진학했다. 학과 공부보다는 동아리 생활과 캠퍼스의 낭만에 빠져있던 그는 도예 전공에 있어선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선배들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도예과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산업디자인과로 전과를 하려던 계획은 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느낀 즐거움으로 잊혀졌다.

전문대학의 도예 전공이 도공, 기술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면 대학은 도예가, 작가를 만드는 곳이다. 현대 도자와 전통 도자, 일반 생활도자와 조형도자로 나뉜 도자계에서 그의 흥미를 끈 것은 조형도자였다.

“도자예술이란 것은 흙으로 빚어서 구워낸 조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쓰임이 없는 예술 작품인 거죠. 저는 생활자기보다는 조형 쪽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흙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조형 쪽에서도 비구상*을 더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도자를 벗어나 환경예술이나 설치미술에까지 관심 분야가 확장됐죠.”

지인들이나 주변에서는 그를 도예가라 표현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작업들이 창작이고 예술 활동의 일부이기에 그는 자신을 그냥 생활예술가이자 조형예술가라고 일컬었다.

* 어떤 대상을 작가의 의도적인 왜곡으로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표현한 미술. 추상의 한 종류.

도에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교육대학원을 선택했어요.

“대학 졸업 때가 되자 주변의 선배들만 봐도 도자기로 먹고살 생각에 막막한 거예요. 도예 작업이 너무 좋으니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한 것이 교육대학원이었어요. 선생이 되면 안정적으로 작업을 병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조형예술과 더불어 평소 교육에도 관심이 있던 병구 씨였기에 교육대학원을 진학했지만, 당시 공예 전공은 교직 이수 과정이 없었다. 임용고시도 사립학교 채용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학원 졸업 후 그가 선택한 일은 고향에 있는 어느 아동미술학원 교사였다. 그러나 학원 운영을 위해서는 아이를 망쳐야 한다는 딜레마에 회의를 느꼈다. 원생들이 그림을 잘 그려 상을 받아야 실적이 나기에 선생이 그림에 손을 대야 하고, 때론 대놓고 방학 숙제를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만행을 겪던 그는 결국 1년 반 만에 학원을 그만두고 기간제 미술 교사로 근무를 했다. 결혼을 하고 어느덧 서른을 바라보던 그가 기간제 교사로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작업을 병행하기란 힘든 일이었고, 결국 그는 고향에 내려가 자신의 작업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는 잘 맞았지만, 학교에 근무하며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교사에 대한 환상이 깨졌죠. 결국 현실적인 문제에 쫓겨서 교사가 될 수는 없단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큰 이슈가 창작 활동, 그리고 교육이예요. 지금도 창작 활동 외에 강의를 나가고 있어

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복지관 수업을 하거나 학생들 대상으로 도자 체험을 진행하기도 하고, 형식적이고 상업적인 체험학습을 안 좋아해서 언젠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어요.”

손수 작업실을 짓는 과정은 3년 정도 걸렸어요.

고향에 작업실을 짓기로 하고 내려온 병구 씨의 앞에 보인 것은 부모님이 내주신 땅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직접 작업실을 짓겠다고 했지만 집을 지을 기술도, 사람을 부려 지을 돈도 없던 병구 씨는 한옥 건축 현장에 찾아가 직접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돈을 벌면서 일을 배우면 좋겠단 생각으로 현장을 찾아갔어요. 집 짓는 일에 애정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할 사람이 필요했기에 내가 한옥 경험이 없었어도 받아줬죠.”

그렇게 한옥목수가 되어 3년 동안 집을 짓는 현장에 있었던 병구 씨가 자신의 작업실을 짓기까지 걸린 시간을 다 합치면 역시 3년 정도였다.

“한옥을 지을 줄 알게 됐지만 정작 제 작업실은 쇠로 용접해서 지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건물은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걸로 했어요. 한옥 건축을 배운 뒤 그 어떤 건축물도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무를 짜 맞추는 수직, 수평, 균형의 원리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집을 짓는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까 나의 안목과 사고가 확장된 느

김도 들었고요. 이제는 가구도 흙집도 돌집도 지을 수 있겠어요. 한옥을 포함한 건축이 사실 종합예술이에요.”

친구한테 설계를 부탁하고 가끔 들르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용접까지 독학해 혼자 지은 작업실이 완성되었지만 작업을 시작할 돈을 벌기 위해 그는 지적장애인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들에게 도예를 가르쳤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진심을 다해 일하는 그의 정성을 알아주기보단 더 과도한 업무와 에너지를 강요당해야만 했다. 관계에 끌려다니다 보면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할 수 없단 생각에, 그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도 억누른 채 일을 부탁하는 웬만한 요청들은 거절한다고 했다.

“내가 기능적으로 쓰임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라 어떤 성과를 위해 이용당하는 느낌. 결국 내가 하고픈 일을 내가 직접 해야겠단 생각을 한 거죠. 스스로 내 삶을 온전히 경영하는 입장에 서야지 남의 수발을 들거나 수단이 되는 일을 해선 안 되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제 꿈은 끊임없이 제 작업을 계속해서 많은 작품들로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만들어 내는 것들 중, 집을 짓는 것이 그걸 요청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과의 상호 관계와 소통에 초점이 잡혀 있다면 흙

작업은 순수하게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을 형상화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코자 하는 작업이에요. 또 먹고살기 위한 방편으로 가구나 도자기를 만들기도 하죠. 쓰임이 있든 없든 자연이 본연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을 재해석하고 다른 느낌으로 표현하는 일이 재미있는 거죠.”

병구 씨는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고 짓고 하는 활동이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고 이름을 알리기 위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의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 즐겁고 다양하게 공유하는 것이 그저 행복하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꿈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것들이 의미 있는 자산,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남았으면 하는 것이었다.

“꼭 꿈이 크고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꿈은 늘 가슴속에 갖고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냥 끊임없이 제 작업을 계속해서 많은 작품들로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고 싶어요. 누구나 갖고 있는 성향이 다 다르고 재능이 다르듯,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영감과 행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4

대한민국 최초의 코미디 서평가

서평과 코미디가 만나면 어려운 책도 친근해진다



코미디 서평가

남정미

- **누구의 이야기?** '코미디 서평가'라는 직업을 만든 전직 코미디언

- **하는 일은?** 코미디언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하여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서평을 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고등학생 시절 MC로 활동 →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 → 대학교 2학년 때 '킬투'에 합류 → 2003년 7월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이후 9년 정도 활동 → 코미디언 활동을 중단 → <모차르트>, <마술피리> 공연 무대에 오름 → <북앤트립> 촬영장에서 김성신 서평가를 만남 → 201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서평 시작 → 2015년 4월 『북톡카톡』이라는 책 출판

- **장래 포부**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

- **그의 한마디** 화장실에서 한 장, 두 장을 읽더라도 그것은 독서이다.

남정미

코미디 서평가



서평가는 쉽게 말해 책을 평가하는 사람이다. 독자에게 책을 소개할 목적으로 논평이나 감상을 글이나 말로 전하는 직업이 바로 서평가인데, 대한민국 최초로 ‘코미디 서평가’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 그녀는 바로 2003년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개그 프로그램으로 데뷔한 이래 9년에 가까운 시간을 코미디언으로 활동했던 남정미 씨이다.

오랜 코미디언 생활에 지쳐 앞날에 대해 고민하던 그녀는 서평가 김성신 씨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녀는 김성신 서평가의 제안으로 2014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서평을 시작했고,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그들의 서평은 2015년 4월 『북톡카톡』이라는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밝고 유쾌한 서평만큼이나 흥미로운 정미 씨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는 사람들이 저로 인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어요.

정미 씨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일을 즐겼다. 언제 어디서든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톡톡히 해냈던 그녀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유머를 잃기 마련인데, 어째서인지 그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갔다. 성적보다는 성격이 좋았다는 그 시절 그녀의 꿈은 MC가 되는 것이었다. 당시 MC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이홍렬, 심형래, 이경규는 그녀에게 있어 롤모델과 다름없었다.

“남들 앞에 서기를 좋아해서 고등학생 때 MC의 역할도 많이 맡았어요. 학생 리포터가 되어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었고요. 12,000명 앞에서 사전MC를 했던 그때가 제 첫 방송 출연이었는데 가수 HOT가 오기로 한 현장이라는 말에 방송 전부터 너무나 신났던 기억이 나요.”

MC로 활동하며 그녀에게 코미디언이라는 또 다른 꿈이 생겼다.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는 연극영화과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 그녀는 곧바로 연극영화과 입시 준비를 시작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경상북도 안동에 입시학원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녀는 혼자서 대본을 만들고 연습을 했다. 그렇게 그녀는 오디션 때 남자 역할을 하면, 그러니까 성별을 바꾸면 탈락한다는 불문을까지 깨고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에 당당하게 합격했다.

“저는 문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는데, 그만큼 대학을 다니며 작품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코미디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희곡부터 시작해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한 경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같은 의미에서 문예창작부도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만약 코미디언을 꿈꾸는 사람에게 전공을 추천해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연극영화, 문예창작 외에도 경영, 경제와 같이 코미디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전공을 추천할 거예요. 임계점을 터트려 새로운 구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코미디에는 공감대, 타이밍, 반복 등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코미디언이라는 꿈이 너무나 간절했던 순간 오디션의 기회를 얻게 되었죠.

대학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정미 씨는 불현듯 “나는 코미디언을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꿈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던 그녀는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곧장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무작정 7학년 선배인 코미디언 김대희 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며칠 뒤 거짓말처럼 그녀는 코미디언 김대희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쉼터 오디션을 보러 오라는 말에 그녀는 노래 ‘냥만 고양이’와 사투리로 만든 개그를 준비해 오디션장으로 향했다. 오디션에 합격한 그녀는 그렇게 대학교 2학년 때 쉼터에 합류했다. 그리고 <웃

음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비둘기 합창단’이라는 코너의 씨름관 민요 가수, 트로트 가수 역할을 담당하는 코미디언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가 코미디언이라는 길을 선택했을 때 부모님이 처음부터 반기신 것은 아니었죠. 그래도 반대는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디에 나가서 상을 받아오면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닌다며 상품을 밖으로 던져버리시는 분이셨는데, 저는 그런 엄한 아버지의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거든요. 고등학생 때는 옷에 신문지를 넣어 저처럼 보이게 위장해 놓고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쳐 방송을 보러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제 의지를 꺾지 못하고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거든요.”

2003년 7월에 데뷔한 그녀는 <웃음을 찾는 사람들> 외에도 <개그 콘서트>, <코미디 빅리그> 등 다양한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코미디언으로 일했다. 그렇게 9년에 가까운 세월을 코미디언으로 살다 보니 그녀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왔다. 코미디언들은 코미디를 펼칠 대부분을 자신이 직접 만드는데, 하나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힘들 뿐더러 방송이다 보니 투자한 시간에 비해 제한이 되는 부분도 많았다.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오래가지 못해요. 새로운 코너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사라지는 흐름이 굉장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제 적성과 가치관이 코미디언이라는 직업과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래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코미디 무대를 떠나 방향 아닌 방향을 하던 그때 마침 김성신 선생님을 만났어요.

정미 씨는 잠시 코미디 활동을 중단하고 〈모차르트〉, 〈마술피리〉 같은 연극이나 오페라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러던 중에 2011년 한국직업방송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북엔트립〉의 패널로 출연하게 된 정미 씨는 그곳에서 출판문화원에 계시는 김성신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애니멀 티칭』이라는 책을 하나 추천해 주셨는데, 그 책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방송 때 ‘선생님, 그 책은 굉장히 화려하던데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저에게 ‘정미 씨, 그 책을 읽었네요.’라고 하시면서 책이 화려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추천해 준 책을 읽고 피드백이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제게 또 다른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게 선생님과 저는 책을 통한 우정을 쌓아갔죠. 〈북엔트립〉을 촬영하는 동안 선생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다가 선생님으로부터 코미디 서평가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받았던 거예요. 본격적으로 서평을 시작한 것이 2013년 4월이었죠.”

라디오 서평을 할 때 대본 작성은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어려운 책들도 구연동화 형식의 재미있는 표현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다. 대본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직접 읽고, 줄거리 정리를 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녀는 특별한 일정이 없어도 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누군가 제 책을 읽고 ‘재밌어요.’, ‘오! 그 책 읽어봤어요.’라고 말하거나 ‘정미 씨가 이야기해 주니까 쉬울 것 같아서 이 책 몇 권 샀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 있죠. 물론 그 책을 산다고 해서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요. 가끔 책을 홍보해 달라는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처음에 김성신 선생님에게 서평교육을 받을 때 절대로 휩쓸리지 않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돈 받고 홍보한 적은 없어요. 저는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가는 큰 출판사보다는, 일인 출판사나 작은 출판사의 좋은 책을 주로 소개하기 때문에 그런 책 위주로 많이 읽으며 서평을 하고 있어요.”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서평을 하는 것이 제 역할이죠.

“서평가는 말 그대로 책에 대해 평가하는 사람이예요. 비평가는 책을 읽은 사람을 대상으로 책을 평가하는 사람이고, 서평가는 책을 읽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죠. 독서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저는 ‘나 같은 사람들도 읽어요. 화장실 가서 한 장, 두 장을 읽더라도 그것은 독서예요.’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책을 많이 읽도록 독려해주고 있어요. ‘북툭카툭’이 바로 그거예요. 코미디언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

각을 이용해서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서평 하는 것이 바로 코미디 서평가인 제 역할이죠.”

정미 씨는 책을 읽는 일에 재미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했다. 모든 책이 재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어렵고 딱딱한 책일지라도 재미있게 풀어가려고 늘 노력을 하다 보니 무엇이든 재미있어 보이도록 과장하는 직업병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밝아지다 보니 그녀는 점점 염세적으로 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한창 코미디를 꿈꾸고 코미디언으로 살아가던 시절만큼 ‘재미’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는 못 하고 있지만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코미디 서평가’로서의 삶이 만족스러웠다.

“서평가로서 힘든 점이 있다면 원고료가 적다는 거예요. 일단 책 한 권을 읽는데 투자하는 시간은 많지만 원고료는 정해져 있으니 상대적으로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서평도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받아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하지만 일을 하며 배우는 것 역시 많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코미디언으로서의 제가 있었기에 오늘의 서평가로서의 저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미 씨는 “한 번 웃겨봐.”라며 장난을 치던 사람들이 많았던 코미디언 시절과는 달리 서평가로 활동하는 요즘 멋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

는다고 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반응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기
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코미디언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후
회하는 것은 아니었다. 코미디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여전히 깊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미디언으로 살았기에 그녀는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코미디언이 되어 하고 싶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제
이름을 걸고 디제이가 되고 싶었어요. 29살에 <굿모닝 코리아>라는 프
로그램에서도 해봤고, 그 이후도 몇 번 디제이를 하면서 꿈을 이뤘죠.
두 번째로는 방송국에서 상을 받고 싶었는데, 2006년 연예대상에서 상
도 받고 희극인 공모대상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
출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책은 쓰진 못했지만, 강의를 해보게 되어서
좋았어요. 29살까지 꿈꿔왔던 것을 다 이루고 나니 30살이 너무 힘들
었던 거 같아요. 막막하기도 했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춘기를 다시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코 자연스럽게 서평가로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서평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라고 조언했다. 어느
직업이든 성실함은 중요한 덕목으로 손꼽히지만, 연재를 하고 마감을
해야 하는 서평가에게 성실함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앞으로 꿈
위 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그녀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처럼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을 권
했다.

“‘창직’이라고 하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하면 좋겠

어요. 이제 평생직업이라는 것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거든요. 스스로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면서 무엇이든 경험하려고 해보세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요. 그렇게 자신에게 투자하다 보면 다 자신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문화
예술분야
2



05

파란색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설치미술가

작품과 공간을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탄생시키다



설치미술가

길다래

- **누구의 이야기?** 작업실을 카페로 개조하여 사람들과 교류하며 개인 작업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 활동을 하고 있는 설치미술가

- **하는 일은?** 카페 〈파란광선〉과 아티스트 레지던시 〈인천 아트플랫폼〉을 오가며 새로운 전시를 기획, 구상하고, 미술 작품을 만드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덕원예술고등학교 진학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한국화 전공) 입학 및 졸업 →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보자르 미술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 → 2학년 말에 자퇴 → 인천 중구에 작업실을 얻음 → 3년 만에 작업실을 카페 〈파란광선〉으로 개조 → 현재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인천 아트플랫폼〉에 입주하여 카페와 오가며 왕성하게 작품 활동 중

- **장래 포부** 훗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진실한 작가가 되는 것

- **그의 한마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더 알고 싶다면** 인천 아트플랫폼 홈페이지 www.inartplatform.kr

길다래

설치미술가



드로잉과 짧은 영상/Drawing movement, 글/Text로 이미지화된 내 작업들은 단편의 오브제들로 이루어져 하나의 구조물을 형성하게 되고 어떠한 공간에 설치된다. 이러한 드로잉적 요소들로 결합된 작업들은 전시장에서 낯선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시 삶의 어느 단편이며 관계의 잔재다. '길거리 식물원'은 도시의 선택적, 제한적 자연으로 집 앞에 놓인 식물들, 조성된 나무들, 버려진 잡초들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작된다. 이 오브제들은 가변적이며 각기 다른 역할과 성질에 의해 그리고 공간에 의해 재구성되어 배치되는데, 이 모습은 마치 정원/Garden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대화와 언어, 텍스트와 관련된 작업은 테이블/Table과 함께 설치되고, 틀/Frame에 대한 관심은 액자로 제작된다.

- 설치미술가 길다래 씨의 〈작가노트〉 중에서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현대미술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고 1 무렵이었어요.

어린 시절 다래 씨는 부모님이 일을 나가시고 언니까지 집을 비울 때면 혼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어려서부터 유독 미술에 흥미가 있었던 그녀는 그림을 계속 그리기 위해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현대미술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한 것도 모두 덕원예술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던 고1 무렵이었다.

“선생님은 무료 전시회가 열리는 인사동 같은 곳을 찾아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또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어 보라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당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미술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지 못했으나, 그때부터 다양한 작품을 접하며 찾아 헤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예고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미술대학에 진학했다. 2학년이 되면서 그녀는 ‘한국화’로 전공을 정했다. 그리고 조소, 서양화 등의 미술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전공자들의 작업을 엿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교양 수업을 들을 때도 자신이 전공하지 않는 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을 선택해 들었다. 판화를 다루는 수업은 그녀가 다섯 번이나 들을 만큼 좋아했던 교양 수업이었다.

“원래는 한 번만 들어도 되는 수업이었어요. 학기마다 석판화, 에칭 등 매년 다른 것을 다루는 수업이어서 여러 번 들었던 것이죠. 그때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졸업전시 작품을 만들 때 실크스크린을

기법으로 한 회화와 나무 조각을 했어요. 물론 전공 수업으로는 전통 수목화, 수묵담채화 등을 배웠지만, 졸업 작품을 전공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었거든요. 어차피 제 개인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이었죠.”

그녀는 대학에 다니며 현대미술 작가와 동시대 아트 작가들에 대해 배우며, 자신의 색깔을 담을 수 있는 미술을 찾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자신이 어떤 미술 작업을 해야 할지 쉽사리 방향을 잡지 못했다. 그때 그녀는 유학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을 졸업한 그녀는 유학을 결심한 지 한 달 만에 평소 동경해온 프랑스로 무작정 유학을 떠났다.

프랑스 유학 생활을 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프랑스의 ‘뚜흐’라는 도시에서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데 매진하던 다래 씨는 유학 생활 5개월 만에 미술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면접을 보게 되었다. 프랑스어로 면접을 봐야 했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그녀에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가 합격하여 다니게 된 학교는 ‘에콜 데 보자르(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Beaux-Arts de Dijon)’였다.

“사실 저는 순수 미술이 아닌 패션디자인을 배우고 싶어 프랑스로

간 것이었는데, 당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에서 ‘nationale’가 붙는 대학들은 학비가 거의 없지만, 사립 학교 같은 학원 개념의 패션 스쿨은 학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그동안 작업한 그림들을 보내 달라고 부탁해 에콜 데 보자르에 지원했던 거예요.”

에콜 데 보자르에는 1~5학년 과정이 있었는데, 4~5학년은 대학원 석사 과정이었다. 국내 4년제 대학에서 이미 학사 학위를 받은 상태였지만, 그녀는 편입학 개념으로 2학년 과정에 들어가야 했다. 한국화를 전공한 그녀는 ‘아트’와 ‘디자인’ 중에서 ‘아트’를 선택했다. 그렇게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던 그녀는 2학년 말에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다.

“늘 서로의 작품을 두고 토론을 했었는데, 제가 프랑스어에 그렇게 서툴지 않았음에도 제 작품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단순히 언어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전시회를 보며 인사동을 거닐던 시절과 변함없이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어떤 미술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제 자신에 대해 깨닫고 나니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자퇴하고 한동안 한국에서 실패자 취급을 받았는데, 그럴 때면 더 열심히 개인 작업에 몰두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작업실을 얻었고, 3년 만에 카페로 개조하게 되었어요.

프랑스 유학 생활 전에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했던 다래 씨는 또다시 외로운 생활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이 계신 인천 중구에 작업실을 얻었다. 지금이야 카페도 많이 생기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은 동네이지만, 그녀가 처음 자리를 잡을 당시에는 한적해서 개인 작업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환경이었다. 그녀는 작업실을 열고 처음에는 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아이들 미술 과외, 포스터나 책 디자인, 벽화 그리는 일을 하며 조금씩 생활비를 벌었다. 때로는 부모님 일을 도우며 생활비의 일부를 받기도 했다.

“저는 개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3년 정도 개인 작업에 몰두하다가 서른이 되고 돌아보니까 제 자신이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업실을 카페로 개조하게 되었어요. 예전부터 카페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카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게 되었죠. 간판은 달지 않았지만 <파란광선>이라는 이름을 짓고, 인테리어도 직접 했어요.”

그녀 특유의 감각으로 꾸며진 카페에는 그러한 분위기를 닮아 독특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특히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카페를 찾아온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그녀는 2012년 7월, <파란광선> 오픈 기념으로 다른 두 명의 예술가와 함께 '3 Serenade'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작가 한 명이 확성기를 들고 카프카의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를 낭독했거든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돌아다니면서요. 예술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었죠. 주민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그 퍼포먼스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술과 대중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처음으로 개인 작업에서 벗어나 다른 예술가와 협력했던 작업이었고 기획 작업으로는 제 데뷔작이었는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카페 <파란광선>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인 동시에 그녀의 작업실이자 전시장이었다. ‘변화하는 공간’을 추구하는 그녀는 때때로 카페 안의 전시 작품을 바꿨다. 그렇듯 사람과 작품이 계속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는 <파란광선>이라는 공간에서 그녀는 더 열심히 미술 작품 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작업실에서 보낸 지난 7년 동안 미술 작업만이 아니라 시나 수필, 단편소설에 가까운 글을 쓰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신이 쓴 글을 미술 작업과 연계하며 미술작가로서 역량을 넓혀가고 있었다.

아트플랫폼 활동은 저에게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되고 있어요.

2015년 3월, 다래 씨는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인천 아트플랫폼>에 입주했다. 예술가들이 개인 작업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인 레지던시에 그녀가 소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2016년 3월까지 1년 동안 입주작가로 활동할 예정인 그녀는 자신의 카페와 레지던시를 오가며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고 구상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11월에 있을 기획전에 대해 계속 구상 중에 있어요. 제2의 사운드 퍼포먼스인데, 지원금도 받았어요. 그래서 각각의 작가들을 초빙하며 기획서를 다듬고 있죠. 그리고 새로 만들 영상 작업에 대해 구상 중이에요. 이번 인천 아트플랫폼에서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오픈 스튜디오>가 있을 거예요. 그때 3일 동안 G1 갤러리에서 전시할 예정이에요.”

그녀는 레지던시를 통한 활동이 작가로서 좋은 경험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작업 공간인 스튜디오를 얻은 덕분에, 다른 입주 작가들과도 교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이름과 작품을 알리기에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실제로 신세계 갤러리에서 협업을 제안받기도 했었는데, 갤러리가 2015년 여름 <COOL 바캉스> 전을 기획하며 파란색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작가를 찾다가 그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저는 전시를 기획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해요. 곁핥기 식으로 한 기획은 관객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절차를 따져 가며 한 기획인지, 그렇지 않은 기획인지는 관객들이 가장 정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고통과 역경을 극복하며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미술가의 가장 큰 매력이지요.

다래 씨는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하는 직업이 바로 미술가라고 생각했다. 단순히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작자로서 감각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작업하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요즘 철학, 문학, 사회학 등의 인문학적 지식을 쌓을 필요성을 느낀 그녀는 공부도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미술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습관처럼 드로잉을 하고 있었다.

“드로잉이라고 표현하지만 낙서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낙서하고, 메모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원하는 이미지나 사물을 그리기도 하고,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아이디어를 적기도 했어요. 우리가 국어 시험을 볼 때 글자 하나하나를 다 읽은 다음에 핵심을 짚어내잖아요. 그런 원리랑 비슷해요. 끼적일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그런 기록들이 다 제 작업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소수의 작가만이 살아남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술가라는 직업은 대부분의 예술 관련 직업이 그렇듯 불안한 직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조건을 자신이 처한 불행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다. 안정적이지는 않아도 고통과 역경을 극복하며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점이 그녀가 생각한 미술가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 그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생겼다.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녀는 자신의 아이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진실한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저는 예고에 미대를 나왔지만, 미술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공부나 일을 하다가 미술에 뜻이 있어서 미술가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미술가가 되는 길은 무궁무진하죠. 꼭 미술가가 아니더라도 항상 최우선으로 자기 자신에게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공부든 개인 작업이든 노력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원하는 일을 찾게 될 거예요.”

문화
예술분야
2



06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대표

춤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다



현대무용가

조현상

- **누구의 이야기?** 태권도를 하다가 뒤늦게 무용에 발을 들였지만 지난 5년간 슬럼프 없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현대무용가

- **하는 일은?**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안무가로서 작품을 만들고 또 무용가로서 작품에 출연하여 춤을 추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태권도로 체고 입시를 준비하다가 뜻하지 않았던 좌절을 겪음 → 계원예술고등학교에 진학(현대무용 파트) → 상명대학교 예술학부 무용학과 진학 → <유빈댄스>라는 무용단의 무용수로 3년 동안 활동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며 2010년 4월 '다크서클즈'라는 이름의 팀 창단 → 이후 다수의 무용 공연작품을 만들고, 무용가를 넘어 안무가로도 활동 시작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에 들어가 공부와 무용가로서의 활동을 병행 중

- **장래 포부** 새로운 것을 배워 자신의 무용과 안무에 변화를 주는 것

- **그의 한마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계산하지 말고 일단 시도하라.

- **더 알고 싶다면**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 홈페이지 <http://www.darkcircles.dance/>

조현상

현대무용가



2013년 어느 한 방송사에서 일명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첫 시즌을 방영했다. 대중들은 그동안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발레, 현대무용, 스트리트 댄스, 스포츠 댄스, 재즈 댄스 등의 다양한 춤을 보고는 특정 무용수의 팬을 자처할 만큼 무용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무용이라는 예술이 대중에게 친숙해지기 이전부터 보다 편하고, 어렵지 않은 공연을 만들고 또 직접 춤을 선보이며 살아온 사람이 있었다. 바로 2010년부터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라는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현상 씨이다.

태권도로 체고에 진학하려던 목표가 좌절되면서 시작하느라 다른 무용수들에 비해 조금 늦은 출발을 했지만 흔들림 없이 춤을 추고, 공연을 하고, 직접 안무를 구성하며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무용가 조현상 씨를 만났다.

운동을 하던 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무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현상 씨가 처음 무용을 시작한 것은 중학교 3학년 말 즈음이었다. 체고 진학을 목표로 태권도에 전념하던 그는 자신을 지도하던 선생님의 사정으로 갑작스레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후 그는 다른 친구들 처럼 공부를 하려고 했으나, 운동을 하느라 그동안 거리를 두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니 그 또한 쉽지가 않았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목표를 잃고 괴로워하는 그에게 무용을 권하셨다. 몸을 쓴다는 점에서 운동과 무용이 비슷할 것이라는 것이 어머니의 생각이었다.

“무용이라고 하면 몸에 딱 달라붙는 타이즈 같은 복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 무용을 해보라는 제안을 사춘기의 남자아이가 어떻게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동안 무용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버텼죠. 일단 해보고 결정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결국 넘어갔지만요. 그때부터 예고 진학을 목표로 무용 연습에 몰두했어요. 예고 입시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계원예술고등학교 현대무용 파트의 신입생이 될 수 있었죠.”

그가 무용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은 예고에 다니면서부터였다. 그 시절 그의 목표는 무용수가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용 전공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늘 무용하는 시간을 즐겼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3학년 때 수업에서 난생 처음 친구들과 무용작품을

만들며 느꼈던 희열은 그가 훗날 ‘안무가’라는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무용에 대한 열정으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던 그는 상명대학교 예술학부 무용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까지 무용을 전공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고 나니 도리어 무용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놀기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3학년 때 특강을 오셨던 외부 선생님이 제게 ‘이 상태로 네가 무슨 무용을 하겠니?’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살도 빼고 생활 습관을 바꾸었어요. 몸을 움직이기가 편해지니까 무용이 재미있어지고, 또 실력도 늘어났죠. 공연 무대에 서는 희열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무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무대에 설 기회를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대학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공연을 하며 보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공익근무요원이었을 때 ‘다크서클즈’라는 이름의 팀을 만들었죠.

대학을 졸업한 현상 씨는 무용수가 되어 <유빈댄스>라는 무용단에 들어갔다. 그리고 무용단 생활을 하는 틈틈이 그는 자신이 직접 구성한 안무로 작은 무대에도 올랐다. 현장에서의 그러한 경험은 그가 대학에

서 무용을 배우며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의 무용단 생활은 3년 만에 끝이 났다. 그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면서 당분간 무용수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지금의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라는 단체의 모태가 된 '다크서클즈'를 만들게 된 것도 그즈음이었다.

“사실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으로 다른 일을 병행하려니 마음에 걸렸죠. 그럼에도 제가 복무 6개월 만에 '다크서클즈'라는 팀을 만들고 공연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셨던 분의 영향이 컸어요. 그분이 '예술 하는 사람들은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의 활동을 응원해주셨거든요.”

2010년 4월 그가 '다크서클즈'라는 이름으로 첫 공연을 했을 때 그의 팀원은 그를 포함하여 여자 무용수와 미국인 무용수까지 단 3명뿐이었다. 그중에 미국인 무용수 '조슈아 퓨'는 그와 함께 다크서클즈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했다. 국제무용제에서 함께 공연을 올린 것을 인연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무용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그 이후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면 만나서 작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조슈아 퓨는 영어학원의 강사로 일하던 때였는데, 대화가 새벽까지 이어지다 보니 피곤함 탓에 그들의 눈 주위에는 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다크서클즈'라는 이름은 그가 자신과 조슈아 퓨의 얼굴을 보다가 아이디어를 얻어 지은 이름이었다.

“다들 멋있는 이름, 거창한 이름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재미있는 이름으로 정하고 싶었어요. 덧 붙이자면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올 때까지 열심히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실은 저와 조슈아 퓨의 ‘다크서클’에서 시작된 이름이지만,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를 위한 공식적 이유도 있어요. 흰색 캔버스에 모든 색깔을 칠하면 검은 핵이 되는 데에서 ‘다크’, 저희가 움직임 만들 때 계속 이어지는 곡선의 에너지를 표현한 ‘서클즈’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것이죠.”

‘다크서클즈’는 〈다크서클즈 컨템포러리 댄스〉라는 단체가 되었고, 대표인 그는 9명의 무용수들과 한 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와 함께 ‘다크서클즈’의 시작을 함께 했던 조슈아 퓨는 미국으로 돌아가 자신이 사는 댈러스에서 다크서클즈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데, 그는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미국으로 건너가 조슈아 퓨와 다시 한 번 공연을 하고 싶다고 했다.

‘댄스 위드 쿵썽’이라는 작품을 공연하러 스웨덴에도 다녀왔어요.

현상 씨는 그동안 무용수로 활동하며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댄스 위드 쿵썽(Dance with Kung-jjak)〉을 손꼽았다. 무거운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만들게 되었다는 그 작품은 원숭이 가면을 쓴 두 명의 무용수가 서류가방에서 바나나

를 꺼내들면서 시작된다. 사람들을 웃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객과 주고받는 리액션이 중요한 그 작품을 공연할 때면 그는 항상 ‘야외 공연’을 고집했다.

“공연을 하면 항상 보러 오는 사람이 정해져있는 거예요. 공연 소식을 전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똑같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래서 역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 공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버스킹 공연’ 개념으로 무용 공연을 시도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을 모아야 하니까 원숭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설정을 하게 되었고, 음악도 유머러스하면서도 귀에 익숙한 것으로 골랐어요. 제목 그대로 ‘쿵썽’의 박자감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작품이에요. 만들면서도 재미있었고, 공연을 하면서도 재미있었어요.”

사람들은 〈댄스 위드 쿵썽〉 공연을 보며 즐거워하고 행복해 했다. 그러한 관객들의 반응을 보며 그는 무용을 보면서도 관객이 웃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덩달아 행복해졌다. 그래서 이후에 그는 국내에서 열리는 야외 공연과 거리축제를 거의 찾아다니며 공연을 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미국, 스웨덴 등의 해외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른 관객들의 반응에 그는 즐거운 추억도 많이 얻었다.

“스웨덴의 프렌지 페스티벌을 아는 우리나라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외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공모라든지, 오디션 같은 것을 모아서 올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알게 된 것이었죠. 공연비도 없고 지원도 없지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에 그냥 서류를 준비해서 냈더니 합격했다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4번

공연을 이야기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게 보니까 주최 측에서 더 해줄 수 있냐고 했어요. 그래서 한 8번을 공연했던 것 같아요.”

무용수로서 안무 구상과 재정적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가장 힘들죠.

“안무를 구상할 때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안 나올 때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현실적으로 뭔가가 딱 마음에 안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짜집기를 하죠. 예를 들면 A, B, C, D의 안무 순서를 바꾼다든지, 그중에 하나를 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기도 해요.”

9명의 무용수를 이끄는 한 단체의 대표이다 보니, 현상 씨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았다. 그는 무용수로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가 무용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가르치는 일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에 안타까워했다. 공연예술창작기금이라는 기금 같은 경우에도 작업에 대한 100%를 지원이 아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에 그치다 보니 무용수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더구나 무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공연장을 찾고 있기 때문에 티켓 판매로 수익을 얻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 그는 무용수로서는 공연을 하고 난 후에 마이너스 상태가 되지 않는 것만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관객을 모으자고 무작정 쇼 형식의 공연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공연으로 많은 관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만 하는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하는 친구들이 있고, 스텝들이 있고, 기획팀이 있다 보니까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느냐를 두고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놓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제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기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돈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우선시하며 살고 싶은 사람에게 무용수라는 직업은 정말 매력적일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비록 한 달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며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에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몸은 힘들고 환경은 어려울 지언정 행복하게는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위에서도 ‘저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하는 소위 땀따라가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하는구나!’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춤을 출 거예요.”

세계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7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현상 씨는 좋은 안무가가 되려면 일단 춤을 많이 춰봐야 한다고 했다. 춤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표현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 많아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용은 종합예술이기에 춤뿐만 아니라 공연에서 활용되는 음악, 조명, 영상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공연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음악의 박자를 파악하고 분석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그 음악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안무의 요소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배경음악으로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 저는 그 음악을 만든 사람에게 실례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이대로 작업을 이어가다가는 5년, 10년 후에도 똑같은 이미지만만 늘어갈 것 같다는 예술가이자 창작자로서의 위기감을 느낀 그는 올해 서른두 살의 나이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대학원 과정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안에 있는 창작과에 들어가 7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앞으로 창작과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 자신의 무용과 안무에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했다. 창작과는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 접근하도록 했다. 음악을 편집하고 만드는 법과 댄스 필름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 외에도 문장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임 만들 것인가에 대

한 연구를 하게 했다. 그는 바라던 대로 무용 외적인 것을 무용과 접목시키는 공부를 하며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금 채우고 있었다.

“춤이라는 것이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이겨내야지만 전문적인 무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용수는 평생을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고통 또한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런 스포츠 브랜드의 카피가 있어요. ‘Just Do It’,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으니까 구르고 깨지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공연 오디션이 있으면 도전해 보고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계산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 보면 좋겠어요.”

07

누구나 스윙댄스를 추는 세상을 꿈꾸는 스윙 댄서

춤추라, 당신도 행복해 질 수 있다



스윙댄서

김잔디

- **누구의 이야기?** 스윙재즈댄스를 중심으로 한 ‘스윙파크쇼’ 공연을 통해 세상에 스윙댄스의 매력을 전파하고 싶은 사업가 겸 스윙댄서

- **하는 일은?** 스윙댄스와 재즈를 기반으로 한 공연 기획과 교육 컨설팅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윙파크를 운영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공업고등학교 졸업 → 2년제 대학의 기계설계과 진학 → 졸업 후 다양한 직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함 → 2002년 취미로 스윙댄스를 시작 → 2006년 아메리칸 챔피언십 스윙대회 프로-아마추어 파트에서의 우승을 계기로 엔지니어를 그만두고 전업 스윙댄서가 됨 → 〈스윙파크〉 창업 → 2013년 〈스윙파크〉 엔터테인먼트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입주 → 앞으로 걸그룹 안무 지도 및 스타일 총괄, 경남MBC 창업 토크쇼 MC, 예술교육원 실용무용학과 교수로도 활동할 예정

- **장래 포부** 스윙댄스 공연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대중화하여 스윙댄서가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 **그의 한마디**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착실히 쌓여 있을 것이다.

- **더 알고 싶다면** 〈스윙파크〉 홈페이지 <http://swingpark.co.kr/aboutsp/>

김잔디

스윙댄서



스윙은 재즈의 한 장르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장르이지만, 가수 박진영의 ‘Swing Baby’라는 곡을 들어보았다면 스윙이 어떤 느낌의 음악과 춤인지를 떠올리기란 그리 어렵지는 않은 일일 것이다. 스윙댄스를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스윙댄서가 하나의 직업이 될 날을 고대하며, 스윙댄스 공연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스윙파크〉를 창업한 사람이 바로 김잔디 씨이다.

〈스윙파크〉를 통해 그녀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국내의 최초로 콘서트와 뮤지컬의 장점을 모아 만든 ‘스윙파크쇼’라는 90분 짜리 공연이다. 2002년 스윙댄스 동호회에서 취미로 춤을 추기 시작한 이후 어느새 13년 차에 접어든 전업 스윙댄서 김잔디 씨를 만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는 스윙댄서가 되기 전까지 여성 엔지니어를 꿈꿨어요.

“어릴 때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인형놀이 하며 혼자 노는 일에 익숙했죠. 특별히 잘하고 싶은 일도 없었고,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에도 큰 흥미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공고를 권하시더라고요. 원래부터 실업계 쪽에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공고에 들어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니는 제가 그 전의 생활을 다 잊고 다시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으로 공고를 추천하셨던 것 같아요.”

잔디 씨는 공고에 다니는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갑작스럽게 기운 집안 형편 속에서, 난생 처음 도서관과 독서실까지 오가며 공부에 매진한 결과였다. 그런 그녀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많지가 않았다. 기계과, 기계설계과, 항공기계과,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그녀는 기계설계과를 선택했다.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만지기만 하면 다 고장이 나는지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야말로 ‘마이너스의 손’이었죠. 너무 속상해서 컴퓨터를 쓰다듬으며 애걸하고 설득하고 그랬어요. 그런 제 노력이 제법 통했는데, 사실 앉은 자리에서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도전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점점 ‘마이너스의 손’이 되어가며 2년 동안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

고,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그녀가 취득한 자격증, 수료증이 전부 다 하면 열 개 정도였다. 그렇게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노력을 다하는 사이 그녀에게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의 길을 택한 그녀는 이후 완구 회사, 제약 회사, 이온수기 회사 등 기계와 관련된 다양한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다.

“회사를 여러 번 옮기고자 의도했다기보다는 일종의 방향을 한 것이었죠.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기계들이 있어서 그만큼 기계설계 전공자가 들어갈 만한 회사도 많았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그 안에서도 가전, 화학, 전기 등 저마다 세부 분야가 있다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기계설계는 여자가 많지 않은 분야라서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독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4년제 대학의 졸업생도, 남자도 아니었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갖은 노력 끝에 취득해온 자격증으로 대기업의 연구소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스윙댄서를 전업으로 삼기 전까지 9년 정도를 여성 엔지니어로 살았다.

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춤을 추다 보니 어느새 3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잔디 씨가 스윙댄스 동호회에서 춤을 배우게 된 데에는 계기가 있었다. 2002년 당시 유행하던 원앰프 음악방송의 사이버 자키로 활동하던 그녀는 청취자 중 한 명으로부터 ‘재즈 좋아하는 것 같으니 재즈 춤을 한번 취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춤에는 자신이 없었던 그녀가 거듭 거절했는데도 그 청취자는 당시 치열한 경쟁률을 자랑하던 무료 강습 프로그램 신청자 명단에 그녀의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 그녀는 스윙댄스의 세계에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어요.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너무 발랄하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몇 주 지나니 박자감이 재미있더라고요. 이왕이면 끝까지 해볼까 싶어서 수업을 한두 개 듣다 보니 어느새 몇 개월이 지나있었어요. 선배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공연도 하는 게 좋아서 일단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보자고 다짐했죠. 3년쯤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스윙에 이미 푹 빠져 있더라고요. 당시 저는 취미도 사치로 느껴지는 형편이었지만, 이제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춤을 추던 그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찾아왔다. 춤에 매력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 정작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에, 그녀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 사이에서 쌓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동호회 사람들과 갈등은 심해지고, 거기다가 취미와 먹고사는 일 사이에서 고민마저 깊어지자 그녀는 무모한 도전

을 택했다. 여권, 비자, 비행기 표, 여행 계획을 세우는 일까지 모든 것을 보름 만에 해결하고는 스윙댄스대회 참가를 위해 무작정 미국으로 향한 것이었다.

“최소한 미국에 가면 원도 풀고, 사람들에게 내가 스윙을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로 춤추는 그들보다 내가 더 스윙을 사랑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싶었죠. 미국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와서는 춤을 그만두고, 하던 일을 계속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커다란 반전이 일어났죠.”

뉴욕 센트럴파크의 풍경에서 ‘스윙파크쇼’에 대한 영감을 얻었어요.

2006년 잔디 씨는 아메리칸 챔피언십 스윙대회 프로-아마추어 파트의 경연장을 찾아갔다. 복장, 음악 등 대회 참가자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그녀는 비록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진심을 담아 춤을 췄다. 그날 그녀는 스윙댄스의 본고장에서, 그것도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챔피언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은 뒷날 그녀가 전업 스윙댄서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 있는 동안 LA, 미네소타, 뉴욕, 샌프란시스코 할 것 없이 두 달 동안 미국 곳곳을 여행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공중전화

카드로 통화하는 것 외에는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집 걱정, 부모님 걱정, 회사 걱정, 일 걱정, 미래 걱정 없이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때 온전히 제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면서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죠.”

그녀가 9년간 삶의 전부였던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이름조차 생소한 ‘스윙댄서’라는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미래 계획이 필요했다. 스윙을 직업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공연’이라는 생각에 이른 그녀의 눈에 센트럴파크의 다양한 풍경이 들어왔다. 비둘기, 거지, 마술사, 악사와 연주자를 비롯해 싸우는 사람들, 신문 보는 사람, 노인, 실직자와 패셔니스타, 화가, 차 마시는 사람, 연인, 가족까지 공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녀는 공원 자체가 한 편의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공원의 풍경을 에피소드로 모아 스윙으로 풀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스윙파크쇼’에 대한 영감을 얻은 그녀는 이제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중이다.

‘스윙파크쇼’를 난타처럼 정기 공연을 하는 공연으로 만들고 싶어요.

잔디 씨는 2011년에 캐나다 국제대회에 한국인 최초 마스터로 초청 받아 1년 정도 캐나다와 북미를 돌며 워크숍 티칭 투어를 했다. 하지만 그 성과만으로 100% 만족할 수 없었던 그녀는 본격적으로 스윙파크라는 사업을 키우기로 결심했고, 같은 해 연말에 아르떼티비 홀에서 ‘스윙파크쇼’의 첫 공연을 올렸다. 스윙으로서는 방송과 극장에서 선보인 최초의 공연이었다. ‘레전드스윙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공연은 2012년도에 비로소 정식으로 ‘스윙파크’라는 이름의 공연이 되었다.

“내용은 단순해요, 공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공연 소품은 딱 두 개예요. 의자와 올해 추가한 가로등. 그 전까지는 의자 하나랑 공연장 스크린에 나무 그림을 켜 놓은 것이 전부였어요. 의자가 있으니까 공원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뮤지컬은 해설이 아닌 노래와 대사로 공연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공연에는 해설이 있어요. ‘어머, 여기 꽃이 많네.’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관객들은 웃으면서 꽃이 많다고 상상해 주잖아요. 그것을 이용했죠. 총 열다섯 개의 단막극으로 이루어진 공연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스윙은 이렇게 즐기면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중간에 게스트가 한 명씩 나와서 춤 얘기를 통해 인생을 풀어내요. 마지막은 노인이 아이와 대화하면서 인생을 담아내듯이 정리해 주는 식이죠.”

현재 그녀는 서울시 청년창업센터에 소속되어 지원을 받으며 스윙파

크를 키워가고 있다. 올해 그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투자를 받아 내년부터 ‘스윙파크쇼’를 난타처럼 정기 공연을 하는 공연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엔지니어로 일했던 경험이 있기에 지금 여러 시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더불어 모호하지 않고 차근차근 밟아 나갈 미래 계획이 있으면 더 좋고요. 남에 의해 시작해 남에 의해 끝나면 후회밖에 남지 않겠지만, 나로 인해 시작해 나로 인해 끝난다면 비록 실패한다고 해도 무언가가 남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전에 했던 엔지니어링 경험을 지금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 활용하고 있거든요.”

잔디 씨는 현재 예술과 3D 프린팅을 결합한 공연 사업을 비롯해, 서너 가지의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를 키우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 예술인들이 먹고살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사업 아이디어들은 자신이 만약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조합들이었다고 그녀는 이야기했다.

“지금 하고 있는 기획들이 실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배운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 생활을 꼭 해보라는 거예요. 회사 생활은 사람을 많이 다듬어 주거든

요.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알려줘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듬어지지 않고 틀이 없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다듬어진 생각과 계획이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최소한 다른 이들이 볼 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배우고 경험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도움이 되니까 언제 어느 위치에 있든 최선을 다해 보고, 끝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험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그녀는 지금도 시간이 나는 대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문화센터나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연, 무료 창업센터, 놀이 공간 등을 활용한다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이 스윙을 추고 싶게 만들 거예요.

“현재 펀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나 내년에 투자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투자를 받기 위해 쌓아야 할 부분이 기획자 커리어라서 최근 들어 기획자, 그리고 안무가로서 커리어를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우선 3명의 여성 걸그룹을 지도하고 있는데 장르가 복고여서 스윙 음악이나 분위기, 스타일이 잘 맞아요. 이 그룹이 세계 투어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안무를 보완하고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남MBC에서 경남 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 대상의 창업 토크쇼를 만드는데, 제가 진행을 맡을 예정이에요. 2016년은 여러 활동으로 더 분주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잔디 씨의 최종 목표는 스윙댄스를 대중화하고 직업화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녀는 지금 만들고 있는 ‘스윙파크쇼’를 ‘태양의 서커스’ 같은 전 세계적인 공연으로 만들어 댄서들이 이 무대를 통해 먹고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전했다.

“사람들이 스윙파크 공연을 본 후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행복하고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스윙은 힙합이나 비보이, 서커스 처럼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면서 추는 그런 멋있는 춤은 아니지만, 춤을 추면 왠지 나도 즐거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춤이죠. ‘이 춤을 추면 당신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활기차질 수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고, 또 그런 감정을 끌어내 주는 것이 ‘스윙파크쇼’라고 생각해요. 춤을 단순히 선망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고 싶고 느끼고 싶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스윙은 더 짜릿하죠.”

무대에 올라갈 사람들을 정하는 그녀만의 규칙은 공연을, 스윙을 정말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 그런 확실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만 무대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녀는 춤을 추는 이가 내뿜는 행복의 에너지를 관객들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에너지를 전달해줄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를 바랐다.

08

전통음식을 재해석하는 요리 연구가

음식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다



스페이스 약념 대표

허혜원

- **누구의 이야기?** 요리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토대로 전통음식 재해석과 새로운 문화 창조 활동을 하고 있는 요리 연구가

- **하는 일은?** 제주도에서 식음과 문화예술을 복합한 문화집단 <스페이스 약념>을 운영하며 전통음식 강의 및 메뉴를 개발하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고교 시절 요리하는 것을 좋아함 → 제주 한라대학교 호텔조리학과(한식 전공) 졸업 → 서울에 있는 궁중음식 전문점에서 2년 근무 →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한식과 떡 공부 → 학사 취득 후 대학원 진학 → 한국음식연구원 조교 근무 → 전통주 공부 → 고향 제주도로 돌아와 제주 향토음식 재해석과 대안적 융복합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스페이스 약념> 활동 중

- **장래 포부** 음식에 대한 마음을 담고, 제주 전통음식을 현대화하는 것

- **그의 한마디** 직업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의 삼박자를 맞춰야 한다.

허혜원

스페이스 약념 대표



소금, 설탕, 식초, 간장, 마늘, 후추, 계피 등 그 종류도 다양한 양념은 음식의 맛을 돋우기 위해 쓰는 재료를 말한다. 그래서 양념은 사람들의 미각을 즐겁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시작은 지금과 달랐다. ‘약을 생각하며 쓴다’는 의미의 어원 ‘약념(藥念)’에서 알 수 있듯이 양념은 어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재이자 식재료였다. 예를 들어, 부유층만 소비할 수 있었을 정도로 값비싸고 귀했다는 계피와 후추의 경우, 소화액 분비를 자극하기 위해 쓰이던 일종의 소화제였다.

다양한 전통음식을 공부하고 고향 제주도로 돌아온 허혜원 씨는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안문화창조그룹 〈스페이스 약념〉을 만들었다. 〈스페이스 약념〉은 예술가, 요리

사, 음악가, 디자이너 등 창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문화 예술과
식음이 만난 융복합 문화를 만든다. 맛있으면서도 약이 되는 음식을 만
들고 연구하며 '약념지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혜원 씨를 만
나 마음에 약이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 덕분에 저도 음식을 좋아했어요.

고교 시절 혜원 씨는 친구들과 음식계를 할 정도로 음식에 관심이
있었다. 요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의도 들으러 다니던 어머니를
보며 그녀 역시 요리를 하고 먹는 일에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 맛집 탐방을 가기도 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
도 즐기던 그녀는 진로를 정할 때 자연스럽게 요리 공부를 하기로 마음
을 먹었다. 그녀는 일단 요리를 하는 것이 즐거웠고, 무엇보다도 자신
이 만든 요리를 누군가가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제주 한라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진학한 그녀는 한식 공부를 선택했
다. 한국인이 가장 잘 아는 음식을 더 잘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
식 이외에도 제과제빵 동아리 활동을 하던 그녀는 학교와 연계가 되어
있던 서울의 한 궁중음식전문점에 취직했다. 처음에 그녀는 스스로 배
울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슬럼프가 찾아왔다.
음식을 파는 식당이기에 상업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했고, 조직 안에서

의 인간관계 역시 사회 초년생이었던 그녀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부분이였다. 자신이 좋아서 시작한 음식이었지만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결국 그녀는 2년 정도 다닌 첫 직장을 그만뒀다.

전통 떡과 전통주 만들기를 배우며 한식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직장을 그만둔 뒤 혜원 씨는 6개월간 쉬며 요가를 시작했다. 그녀의 요가 선생님은 고기를 섭취하지 않는 채식주의자였는데 거기에 심취했던 그녀는 선생님을 따라 자연식을 시도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고기를 쓰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떠올린 것이 바로 떡이었다. 떡은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렇게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떡을 배우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떡을 만들며 다시 한국음식을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그녀는 이후 대학원에 진학했다. 숙명여대 전통식생활문화 전공으로 다양한 전통음식 공부를 하던 중 다음으로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전통주였다.

“저도 술을 못 마시는 편은 아닌데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통주연구소에서 마신 술은 ‘맛있다’는 느낌이 있었죠.”

소주나 고량주처럼 증류해서 알코올 향이 많이 나는 술과는 달리 한국의 전통주는 효모 발효를 통해 만드는 발효주이다. 그리고 그 발효의

원료는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먹는 밥이다. 전통주는 쌀을 깨
곳이 씻은 뒤 찜통에 찌서 고두밥으로 만들어 술을 빚거나 혹은 떡으로
빚기도 한다. 그런 원재료들에 의해 향과 맛이 달라지고, 음식에도 새
로운 약념으로 가미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전통한국음식을 거
쳐 후식인 떡과 술 만들기까지 배우고 나서 그녀가 느낀 것은 이 모든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었다.

“떡까지 배웠을 땐 식사 코스로 따지면 죽 나열할 수 있겠구나 정도
였는데, 술을 배우니 하나의 원이 완성되는 느낌이었어요. 전 떡을 먼
저 배웠으니까 떡을 만들려고 빵아 온 쌀가루가 시어지면 버렸는데 술
수업 선생님이 시어지는 쌀가루로 만들면 술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술이 발효되면 식초가 되고 식초는 음식의 식재료로 쓰이고, 식초도 마
지막에 그냥 놔두면 휘발이 되어서 물이 돼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식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주 전통음식을 현대화하고 싶었어요.

한국음식연구원에서 조교 생활을 하다가 전통주 연구소로 자리를 옮
긴 혜원 씨는 그곳에서 2년간 근무를 한 뒤 고향 제주도로 돌아왔다.
언젠가는 고향에서 고향의 향토 재료들을 이용해 전통음식을 새롭게

만들어 보고픈 마음 때문이었다.

“처음엔 전통주 연구소 다니면서 제주도에 강의 의뢰가 와서 서울에서 제주를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면서 제주 음식이나 그곳의 식재료를 이용해 메뉴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제주 음식에 대해 총체적으로 메뉴 개발을 해보고 싶어요.”

그녀는 모교인 한라대학교 호텔조리학과를 비롯해 여러 군데에서 한식과 전통주 강의 등을 하면서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는 오가닉 푸드 개발 연구를 시작했다. 상애폍 혹은 상외떡으로 불리는 막걸리 빵을 이용한 샌드위치 ‘상애폍리’나, 돌담메밀범벅 등은 제주도 향토음식들을 그녀 식으로 재해석한 음식들이라고 했다. 옛날부터 밀, 보리, 메밀 같은 잡곡을 많이 먹던 제주도 음식들이 베이스가 된 것이었다.

“제주도에는 ‘상애폍’이라는 막걸리 빵이 있는데 거기에 팔 같은 걸 넣어서 먹거나 해요. 술떡이랑 비슷하긴 한데 밀가루로 만든 거죠. 미국에 갔을 당시 먹었던 버거를 생각하고선 우리도 불고기 양념을 한 고기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봤어요. 그걸 처음 행사에서 팔았는데, 처음 보는 건데도 먹어보지 않아도 맛있을 것 같았는지 사람들이 이야기만 듣고서도 바로 사 가더라고요. 메밀범벅도 원래 메밀의 담백함과 고구마의 단맛으로 먹는 간식인데, 여기에 설탕을 조금 더하여 단맛을 더하고 검정깨 가루를 넣어 고소한 맛을 더했죠. 지난번에 메밀꽃 축제에서 만들어서 시식을 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어른들은 옛날 생각이 나서 좋다고 하시고, 아이들은 단맛이 느껴지고 까마면서 거칠게 동그란 모양이 제주 돌담을 닮아 재미있어 했어요.”

〈스페이스 약념〉은 모두에게 약이 되는 공간을 만들려고 모인 집단이에요.

제주로 돌아온 혜원 씨는 부모님의 농장에 있는 작은 창고에 작업실을 준비하며, 그 공간에 어울리는 이름을 고민하다가 ‘약념’이란 단어를 발견했다. 이후 그녀는 메뉴 개발 이상의 좀 더 큰 활동을 구상했다. 디자인 전공을 한 친오빠를 시작으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과 함께 문화와 식음을 합친 문화 창조를 시작한 것이다.

“작업을 한 공간으로 지정하지 말고 우리가 장소를 펼치는 곳이 스페이스 약념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만들자는 거였죠. 처음엔 행사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공간을 만든 다음에 자리를 잡고 시작하려던 건데 취지가 좋다고 생각이 드니 행사를 먼저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들은 첫 행사를 감귤 농장에서 열었다. 그녀는 농장 텃밭의 가지나 호박 같은 농작물들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공간 예술가는 농사에 쓰이는 도구로 조형물을 만들었다.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 등을 전시한 사진전을 열고,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와서 공연을 했다. 2011년 8월 처음으로 열린 행사는 3년에 걸쳐 ‘스페이스 약념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의 행사를 하고, ‘스페이스 약념 데이’를 진행한 이후 잠시 휴식 중이라고 했다. 막무가내로 시작한 행사였지만 생각보다 관심을 보이는 곳도 많이 생겼다. 특히 자신의 농장에서 농사 이외의 다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가진 농

부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요즘 유행하는 팝파티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행사였다.

“음식이 단순히 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거죠. 농장에 직접 가서 체험도 하고 함께 음식도 하고요. 체험을 통해 그 음식에 대한 마음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스페이스 약념>의 행사는 지금 잠시 쉬는 중인데, 이 행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약념 음식에 대해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행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조금 더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직업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의 삼박자를 맞춰야 돼요.

혜원 씨가 요리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에게 요리해 주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이었다. 무언가를 남에게 주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녀는 학교에서 요리를 배웠다. 그때까지 그녀의 머릿속엔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이 아니면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러나 직접 주방 일을 경험하며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어긋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동시에 요리 교육을 할 때 교육받는 사람들의 만족스런 모습과, 좋은 걸 같이 공유하는 즐거움의 소중함을 느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제주도 출신으로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

하고 있었다. 지금의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에 맞춰 살고 있다. 물론 삼박자를 맞추기까지 수월한 일은 없었다.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보면 그게 직업이 되는 것이죠. 물론 돈이 연계될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남은 상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그 자리에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방향을 두고 계속 경험을 하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 발견해서 스스로의 직업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그녀는 제주 지역 라디오 방송국 프로에 음식을 소개하는 ‘약념 지기 허혜원의 약이 되는 음식 이야기’ 코너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다. 음식에 대한 마음을 담고 제주도 향토음식을 현대화시키고 싶다는 그녀의 앞날을 기대해 본다.

09

사람과 문화를 소소하게 연결하는 네트워크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든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 & 문화마케터

백영선

- **누구의 이야기?**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소통방법을 시도하는 문화 마케터

- **하는 일은?** SNS 미디어를 통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상에 알리며, 크래비터 사람 도서관 운영 및 문화 행사 진행을 통해 제주 내외 인재들이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일

- **꿈을 이룬 과정** 학창시절 성당학생회를 통해 처음으로 기획 일 경험→공대 진학→대학교 노래 동아리에서 공연기획 담당→‘문화예술운동연합회’라는 단체의 대표가 되어 거리 공연과 축제 기획→지역사회와 연계한 대학축제 기획→대학 졸업 후 축제 기획사에 취업→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공연 전공) 진학→마술사 ‘데이비드카퍼필드’ 내한공연 마케팅 담당→영국 어학연수 및 유럽여행→3년 동안 공연기획사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마케팅 경험→〈한화호텔앤 리조트(구, 한화63시티)〉에서 문화마케터로 2년 근무→〈다음(daum)〉에서 문화마케팅 및 조직문화 담당→현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육성팀에서 커뮤니케이터로 근무 중

- **장래 포부** 세상의 흥미 있는 변화를 위해, 세상에 자그마한 영향을 미치는 ‘소셜임팩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 것

- **그의 한마디** 기획은 늘 존재하며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은 세상(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만들고, 스스로 자기분야에 대한 공부와 경험을 이어가는 것이다.

백영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소셜 & 문화마케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육성팀에서 일하고 있는 소셜 & 문화마케터 백영선 씨가 하는 일은 크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사람 네트워크, 문화 기획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혁신센터의 소식을 알리고, 제주의 숨은 매력 특히 좋은 사람들을 발굴하여 외부에 홍보하는 것이 그가 맡은 역할이다.

더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생겨나 제주도가 산업 및 문화적으로 활발한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서로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엮어주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영선 씨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제주 크레비티* 사람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에서의 여가

* 크리에이티브, 그래비티, 사람의 합성어로 창의적 중력을 가진 사람들

와 문화를 보다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이기도 하다. 자신을 사람과 사람을 잇는 ‘커뮤니케이터’라고 칭하는 백영선 씨를 만나보았다.

성당에서, 대학에서 기획 일을 경험하면서 점차 제 길을 찾게 되었어요.

영선 씨에게 일주일에 하루, 성당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치 축제와도 같았다. 성당은 남중에 이어 남고에 다니던 그가 또래의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여느 사춘기 남학생들처럼 여학생에 대한 호기심에 매주 성당으로 향하던 그는 그곳에서 난생 처음 기획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는 성당학생회의 일원으로 성당의 소소한 문화행사를 기획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 앞에 나서고 또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에 대한 감을 조금씩 키워나갔다. 그 때 그렇게 기획 일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이과생이었던 그는 큰 망설임 없이 공대에 진학했다.

“고3 때 제 친구가 종종 기계공학과에 다니던 형의 노트를 가지고 와서 보여줬었거든요. 제가 공대에 지원하게 된 것은 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전공도 특별히 제 취향과 앞날을 생각하며 정한 것이 아니라 성적에 맞추어 정했던 것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할지도 알지 못했었죠. 그런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노래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오리엔테이션 날 선배들이 부르던

노래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사실 그는 음치에 다룰 줄 아는 악기도 딱히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노래가 좋아서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다했지만, 무대에 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학년 때야 어떻게든 넘어갔지만 그가 더 이상 노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 위기감을 느낀 그는 동아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시에 없었던 ‘기획’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심했다.

“제가 활동하던 동아리에서 주로 부르던 노래가 민중가요였는데, 대중가요에 비해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강당이나 공연장에 설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간 기획을 하기 시작했죠. 오가는 사람이 많은 길거리를 찾되, 노래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찾는 그런 곳 말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녔어요. 그 때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공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풍물, 민요, 영상, 그림 등 십여 개의 동아리가 속한 <문화예술운동연합회>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게 된 그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거리 공연, 거리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후 그는 군 생활을 하면서도 행사를 기획 하고, 사회자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언젠가 만들고 싶은 축제의 그림을 그리며, 그 내용을 담은 편지를 친구들과 주고받기도 했다. 제대를 하고 전공 공부에는 도무지 집중할 수 없었던 그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다가 자신이 갈 길은 ‘축제’라는 것을 깨달았고,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에 ‘대동제’라는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저는 그 행사를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모두의 축제로 만들고 싶었어요. 삶과 학업이 교차하는 경계 지점에 무대를 만들고 싶어서 상가와 학교 사이의 도로를 막고 축제를 진행하자는 기획안을 냈는데 다행히 통과가 되었죠. 지역주민, 학교, 학생회의 후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축제를 치러내면서 저는 그 때 ‘아,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축제 기획자에서 문화 마케터로 변신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영선 씨는 학교 선배의 소개로 축제 기획사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세계통과의레페스티벌, 전주 세계소리축제 등 굵직한 행사들을 기획사 직원들과 함께 준비하고 진행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는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 그는 그동안 해오던 일을 계속 하기에는 문화 분야의 네트워크와 학문적 배경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들어가 공연을 전공하며 그는 축제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정책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갔다. 그런 그에게 인생의 대반전과 같은 기회가 찾아온 것은 지원한 회사에서 고배를 마신 직후였다.

“당시 출범을 앞두고 있던 〈서울문화재단〉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축제기획팀에 지원했었어요. 1차 서류 심사부터 3차 면접까지 통과하

고 최종면접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모집요강에 없었던 영어 면접이 추가된다는 것이었어요. 학원의 일일 특강으로 나름의 준비를 해봤지만 아쉽게도 떨어졌죠.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학연수를 고민하던 그 때 선배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유명 마술사가 한국에 오는데, 그 공연의 마케팅 담당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어학연수를 떠나기까지 6개월의 공백이 있었던 그는 경험을 쌓을 생각으로 마케팅 팀장 일을 수락했다. 사실 그는 그 때 마케팅의 ‘마’자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마케팅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하고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전부 활용했다. 성공적으로 일을 마친 그는 계획에 따라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어학공부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러 축제를 경험했다. 그리고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그는 본격적으로 공연 마케팅 일을 시작했다. 이후 3년 동안 그는 뮤지컬, 클래식, 뉴에이지, 발레공연, 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공연장을 경험했다.

“당시 기업들의 문화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여서 저는 마케팅 일을 하면서 여러 기업을 만났어요. 그 중 하나가 지금은 ‘한화호텔앤리조트’라는 이름으로 바뀐 <한화63시티>와 <다음(daum)>이었죠.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일하다가 한화에서 아이맥스 영화관을 공연장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입사를 제안하기에 그 회사로 자리를 옮겨 제작부터 기획, 마케팅까지 공연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화63시티〉에서 일하던 중에 영선 씨는 당시 연극, 전시, 영화제, 뮤직페스티벌 등의 문화콘텐츠와 독점 제휴를 맺으며 평정하기 시작한 〈다음〉으로부터 문화마케팅 담당자 자리를 제안 받았다. 이직한 지 오래 되지 않아 한 차례 거절을 했지만, 몇 개월 후 다시 제안을 받게 되자 그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입사를 원했던 회사이기도 하고, 다시 기회가 찾아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에 그는 2010년 1월 〈다음〉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업의 문화마케터로서 그가 하게 된 일은 축제와 공연 현장을 찾는 젊은 고객들에게 회사의 브랜드를 알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기획하는 것이었다. 이후 그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경영지원부서로 팀을 옮겨 계속해서 역량을 발휘해나갔다.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왔어요. 그렇게 쌓아온 인간관계 중에는 저 혼자 알기에는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사내에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다공동’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문학 동아리 ‘통통배’도 만들었는데, 통통배를 타고 망망대해에서 표류하지 말고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를 찾아가 보자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죠. SNS가 활성화된 덕분에 어렵지 않게 유명인들을 연사로 섭외할 수 있었어요.”

2014년 제주도에 〈다음〉의 두 번째 사옥인 ‘스페이스닷투’가 설립되

면서 그는 오픈행사 기획을 위해 제주도로 건너갔다. 제주도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회사는 합병이 되었고, 조직은 바뀌었다. 그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겠다는 고민을 하던 그때,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제주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생기면서 센터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제주에서 멋진 프로젝트를 도모해 보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주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잘 엮고 이어, 외부 사람들에게 제주를 ‘관광의 섬’에서 ‘일과 삶이 있는 제주’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이었죠. 그것을 위해 다시 제주에 내려왔습니다.”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축제라는 것은 일상의 전복이잖아요. 익숙한 공간에 무언가 새로운 장치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일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거리축제의 경우를 보면, 늘 당연하게 자동차가 차지하던 도로를 사람들이 가득 메우는 변화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사람들에게 사회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예민한 축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축제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감수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것이 제가 가진 성향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영선 씨는 축제가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상품의 매력과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세상에는 수천, 수만 명의 마케터가 있는데, 마케팅을 하는 방식은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상품이나 대상의 기능적인 부분을 어필하는 마케터가 있고 감성을 어필하는 마케터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철저하게 ‘감성’을 어필하는 마케팅에 가까웠어요.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다루지는 못 했어도 그런 문화 자체를 즐기고 좋아했기 때문에 기획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되었고, 결국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왔던 것이 지금 저의 특기이자 무기가 되었죠.”

서로 접점이 없던 사람들이 만나고 어우러져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그 속에서 얻은 재미와 자극을 통해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돕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다. 앞으로도 그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기회는 찾아올 거예요.

“제주에 와서 창업자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 저도 그들이 가진 에너지에 자극을 받게 되었어요.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나만의 프로젝트’

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회사를 떠나 새롭게 창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회사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IT 기업에는 사내벤처들이 많거든요. 내가 회사에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나에게 조직을 꾸릴 수 있는 권한과 비용,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내에 제안할만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영선 씨는 얼마 전 지인의 ‘너의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 시금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 지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레 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기에 특별히 꿈을 염두에 두고 살지는 않았던 그는 최근에 들어서야 ‘꿈’이라는 단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주축이 되어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꿈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어릴 때는 추상적인 미래나 어떤 직업을 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40대에 접어든 지금 저는 그런 어떤 직업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꿈을 꾸고 있어요. 제 꿈은 언젠가 ‘협동조합형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100명이 공동출자를 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나며 서로 좋은 자극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협업하는 과정에서 얻은 영감으로부터 각자가 또 다른 자기만의 사업을 하게끔 서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돈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로써 100명이라는 동료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다. 천생 네트워커의 성향을 지닌 영선 씨에게 그 꿈은 그리 멀지

않아 보였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출신이 아니라 실력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해 보이는 직업이 20년, 30년 후에는 전혀 시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직업일 수도 있고요. 기회는 출신이나 성적에 따라 분배된다기보다 자신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봐요. 내가 좋아하고, 가치를 두는 분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꾸준히 탐구하고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 분명 기회는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

문화
예술분야
2

만든 사람들

기획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문승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이영선

생애진로개발연구소

대표

양안나

위즈돔

대표

오윤덕

캠퍼스멘토

대표

안광배

집필

김지은

유민정

이단비

자문

라이스메이커

대표

민영범

SADI

교수

김명진